

■ ‘광주전남작가회의’ 올해 사업계획 살펴보니

5·18정신 상기… 전국 문인들과 ‘오월문학’ 조망

오월문학제·섬진강문학학교·기관지 발행 주력 방침
5·18문학상·‘작가’ 신인상 시상… 각 지회 활동 유곽
합동출판회·가을문학의 밤… 기후 단행본 발행 등도

미술이나 공연 분야에 비해 다소 주춤해진 문학단체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문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기존 해오던 사업 등을 무리하지 않고 원만하게 소화할 방침이다.

올해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미숙)는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됐던 회비를 소폭 인상함에 따라 운영에 숨통이 트일 지 주목된다.

또 가입만 해놓고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을 본격 논의의 장으로 끌어낼지도 관심이다. 광주전남작가회의를 시작으로 아직 정기총회 전인 광주문인협회 등 문학단체들의 올해 사업계획을 정리,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작가회의의 간판 행사는 뭐니 뭐니해도 전국 문인을 대상으로 매년 열고 있는 ‘오월문학제’다. 광주를 중심으로 문학을 통해 5·18항쟁 정신과 송고한 열사들의 삶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진보를 표방하는 문인들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다.

지난해 오월문학제는 ‘오월 너머의 문학, 세계의 물결로!’라는 주제로 5·18민중항쟁 45주기를 맞아 전일발딩245와 국립5·18민주묘지 일원에서 성황리 열렸다. 더욱이 12·3비상계엄 이후 그 여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문인들의 바람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오월문학 심포지엄을 통해서도 내밀한 5·18항쟁정신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를 모색했다.

올해 오월문학제는 지난해의 흐름 속에서 일관된 방향을 잡아나가기로 했다. 5·18민중항쟁 46주기를 맞아 열릴 오월문학제는 지난해처럼 전일발딩 245와 국립5·18민주묘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본 행사에 앞서 5·18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된다.

5·18문학상은 5·18기념재단 주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상자 확정도 재단이 선정해 발표한다. 오월문학제는 문학제를 통한 오월정신 계승, 참여자가 시낭송 및 국악 공연, 5·18민주묘역 참배 및 추모식 거행, 전국 작가들의 걸개 시화전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해 27회째를 맞이할 섬진강 문학학교는 애초 초·중·고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나 청소년만 가지고는 문학학교 진행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맞음에 따라 일반으로까지 연령층을 확대, 실시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범주 안에서 진행된다.

섬진강 문학학교는 6~7명을 묶어 반을 구성, 작가와 밀착해 이뤄지는 프로그램과 시인 특강, 장기 지랑, 댄스 경연, 노래공연, 레크리에이션 활동,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올해는 지난해 기준으로 접근하면 10월 중순에 실시된다. 행사 일시에 대한 최종 확정도 추후 결정한다.

또 작가회의는 기관지인 ‘작가’ 제38호와 제39호를 상·하반기에 제작한다. 회원들의 시와 소설 수



광주전남작가회의는 올해 오월문학제·섬진강문학학교·기관지 발행 등에 주력하고, 합동출판기념회와 문학의밤 행사 및 기후위기 진단 단행본 출간 등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오월문학제’ 기념촬영 모습.

록 및 서평, 신작 작품집 소개를 망라해 전 장르에 걸쳐 작품과 특집, 신인상 당선작 등의 코너로 꾸며진다. 지난해 12·3비상계엄 릴레이 천막농성이 특집으로 다뤄져 눈길을 끌었다. 올해는 어떤 특집이 다뤄질 지 이사회나 편집회의 등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아울러 ‘빛의 여정·여성, 역사, 예술로 피어나다’라는 타이틀로 지난해 10월 열린 2025 광주민족예술에 참여했던 올해도 2026 광주민족예술에 참여한다. 민족예술제는 그동안 광주민예총과 함께 여는 행사로, 걸개시화를 선보이고 사투리시낭송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광주문화재단 글빛마루정원 인문프로그램인 ‘마음을 읽는 그림책’ 같은 프로그램 등도 강구 중이다.

작가회의는 연 1회 이상 분과모임을 통해 활성화를 꾀하는데 이어 문학기행 및 소통 강화, 문화예술 지원사업 안내 등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회원들의 관련 글을 모아 펴낼 단행본 ‘기후위기 작가들의 선언’ 역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수한다. 단행본 발행은 올해부터 시작해 매년 테마별로 펴낼 복안이다.

특히 이중 소통강화에 어느 해보다도 더 노력을 쏟을 각오다. 이를 위해 연 2회 모임을 강구하고 있

다. 상반기에 작품집을 펴낸 회원들을 대상으로 7월께 합동출판기념회를 열고, 하반기에 작품집 출간 회원들을 포함해 11월께 ‘가을문학의 밤’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각 지부를 통한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난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던 여수작가회의는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시화전’과 기관지 ‘여수작가’ 발행 등이, 목포작가회의는 문학아카데미와 ‘제20회 김현문학축전’ 등이, 순천작가회의는 정기산행과 5월 문학아카데미 및 여름 야외 화, 기관지 ‘사람의 깊이’ 발행 등이 각각 예정돼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캐나다 국제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진행

광주시립미술관, 오늘부터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캐나다 측 작가 아리안 발라드·캡 등 입주작가 2명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2026 캐나다 교류 관련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를 20일부터 22일까지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광주 북구 하서로52)에서 진행한다. 아틀리에 서클러(캐나다 몬트리올) 협력과 주한 캐백정부 대표부, 몬트리올 예술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오픈스튜디오의 오프닝 행사는 20일 오후 4시 시작한다.

시립미술관은 2025년 3월 작가 2명(팀)을 모집한 가운데 경지수(화화)와 정혜성(평면·설치)을 선정, 캐나다 몬트리올에 그해 4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파견했다. 국제레지던시에 입주한 캐나다 측 작가 2명은 아리안 발라드(Ariane Valade, 실크스크린)와 터커 캡(Tucker Frederick Kapp, 동판화)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입주한 가운데 오는 28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이번 레지던시는 지역작가들이 기존의 작업 매체에 더해 새로운 기술적 시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판화 및 다양한 프린트 메이킹 설비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동스튜디오 아틀리에 서클러와 광주시립미술관의 협약으로 시작했다.

작가 아리안 발라드는 광주에서 머무르는 기간 동안 수집한 과거 봉투, 일화용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병을 이용, ‘뜨개질’이라는 전통적 기



아리안 발라드 작 ‘풍경을 오려내기’

법을 통해 재현용품과 실을 엮어내는 작업을 선보일 방침이다. 동판화와 활자를 다루는 작가 터커 캡은 서남동 인쇄의 거리에서 수집한 종이 위에 타자기를 이용한 작업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문자’ 자체의 텍스처, 지식의 재현과 과정, 정체성 문제를 언급한다.

또 지난 2개월간 광주에 거주하며 서남예술촌 인쇄의 거리와 판화 기술 기반 지역 작가 스튜디오(김상연·정승원)에 방문하는 등 작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포도나무갤러리 등 예술 현장을 방문하며 지역의 예술 커뮤니티와 접촉할 수 있었다.

입주 작가들은 앞선 레지던시 경험과 지역 답사를 통해 광주 미술생태계와 한국 인쇄술의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광주시립미술관과 아틀리에 서클러를 거점으로 하는 더 많은 커뮤니티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캐나다 레지던시는 주한 캐백정부 대표부와 몬트리올 예술위원회의 후원에 의해 진행됐다.

윤익 관장은 “이번 국제레지던시의 경험이 두 작가에게 조형언어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며, 광주에서 창작 환경 체험이 다양한 예술적 가능성을 심화시키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립광주과학관 제9기 루체스타 발대식 단체 기념 모습.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과학관

내달 9일까지 국민홍보소통단 모집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오는 3월 9일까지 국민홍보소통단 ‘루체스타’ 10기와 학부모모니터링단 ‘사이언스 브릿지’ 9기를 모집한다. ‘루체스타’는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과학 이야기를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이다. 호남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100명을 선발한다.

2017년부터 운영돼 올해로 10기를 맞은 ‘루체스타’는 국립광주과학관의 빛나는 별이라는 뜻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과학관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홍보소통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사이언스 브릿지’는 과학관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 유아 또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총 30명을 모집한다.

회원들은 과학관 프로그램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2026년 국민홍보소통단의 활동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다.

국민홍보소통단에게는 상설전시관 및 특별기획전 무료 이용(월 2회, 동반 3인까지), 연말 우수활동자 시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960-6172.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남문화재단, 21억 규모 문화예술지원 337건 선정

24일 순천·26일 무안서 선정단체·예술인 워크숍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2026년도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정시공모를 통해 총 1035건의 신청 가운데 337건을 최종 선정하고, 총 21억원 규모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에는 문학·시각·공연 등 전 분야에서

지역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의 참여가 확대됐으며, 장르 다양성과 창작의 실험성, 지역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이 이뤄졌다.

선정 내역은 총 5개 사업, 337건으로 예술활동 지원 313건,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7건, 창작공간지원 6건, 자율기획형 5건, 공연장 협력 예술

단체 지원 6건이다. 총 지원 결정액은 21억3000만원이다.

재단은 선정된 단체와 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순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과 26일 오후 2시 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 공연장에서 선정단체·예술인 워크숍을 갖는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 기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교육, 예

술인 고용·산재보험 제도 안내, 저작권 교육 및 상담, 예술 협업을 위한 커뮤니티케이션 특강 등 실무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2026년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가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모 선정 결과와 워크숍 세부 일정은 재단 누리집(www.jn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280-5822-25.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